

[트렌드 & 스타일]



■ '태닝' 이렇게...

효리처럼
섹시하게...

살 좀 태워봐!

노출의 계절 여름, 건강하고 섹시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가 인기다. 올해는 쇼트 팬츠나 미니스커트, 민소목 옷 등 몸매를 강조하는 패션이 유행하면서 날씬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햇빛을 이용한 자연 태닝, 기계를 이용한 인공 태닝과 함께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셀프 태닝 제품도 출시되어 있다.

■ 태닝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연 태닝, 인공 태닝, 셀프 태닝 등 태닝의 방법은 다양하다. 자연 태닝의 경우 처음엔 10분 이내로 시작해 햇빛량을 서서히 늘려가며 피부 적응력을 높여도 좋다. 햇빛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시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을 덧발라 준다.

인공 태닝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화상과 알레르기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편하고 빠르게 예쁜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광검사를 받은 후 태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빛 강한 오전 11시~오후 3시 피해야
셀프 태닝은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를 그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 염색제를 이용해 피부에 색을 입히는 만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화상, 기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이 장점이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7일 동안 유지된다. 물에 태닝제를 바른 후 15분 정도 지난 뒤 옷을 입도록 하고, 얼룩이 남을 수도 있으므로 4시간 정도는 되도록 땀이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성공적인 태닝을 위한 주의 사항
태닝의 포인트는 얼룩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태닝 전에는 몸의 노폐물이나 각질 등을 제거하고 물이나 따뜻한 물 샤워를 한다.

자연 태닝의 경우에는 햇빛이 강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는 피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 입술과 눈 등 예민한 곳에는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한다. 자제를 수시로 바꾸도록 하고, 반지나 시계 등 액세서리나 장신구 착용은 피한다.

태닝 후에는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수분 젤이나 크림 등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수분과 영양을 보충한다. 팩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태닝으로 인해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태닝 후 피부가 얼룩지거나 칙칙해졌다면 미백 전용 제품을 이용해 깨끗이 씻어준다.

광주 아름다운 피부과의 황선우 원장은 "지나친 태닝은 색소침착이나 주근깨, 피부 노화 등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태닝 후에는 냉찜질이나 우유 찜질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포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식정기자 ks@kwangju.co.kr

■ 올 여름 수영복 트렌드

스포티 + 실용 = 리조트웨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바다든 수영장든 여름을 즐기는 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수영복이다. 여름을 위해 몸매 관리에 해운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다. 비키니 등장 60주년을 맞아 올 해변에서는 단연 비키니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있게 비키니를 구입했지만 막상 입기에는 망설여진다면 다양한 수영복 패션을 참고할 만하다. 약간의 센스만 더하면 감각적인 '리조트 웨어' 연출할 수 있다.

핫팬츠·스커트 겹쳐 입으면 센스 만점
화이트 색상에 꽃무늬·트로피컬 유행
모자·젤리 액세서리로 포인트 더 발랄

■ 비키니
속옷과 흡사하게 이루어진 수영복으로 1946년 디자이너 루이 레아드에 의해 처음 등장 당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다. 배꼽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됐던 당시에 비키니는 가히 핵폭탄 수준의 충격이 가까웠다. 비키니라는 명칭도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유래한 것.

올해는 상하의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투피스에서 랩 스타일의 스커트나 쇼트팬츠, 볼레로 등 2~3개의 옷을 겹쳐 입는 비치웨어 스타일의 비키니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섹시함의 대명사였던 비키니가 큐트(CUTE), 스포티(SPORTY)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 올 여름 비키니 경향
패션계 유행 아이템이 비키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올 여름 패션계를 주도했던 코드는 푸른 바다를 향해하는 시원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깔끔하고 시원한 '마린룩'. 비키니 패션에도 화이트와 네이비의 조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꽃무늬를 비롯해 동물, 과일 등이 그려진 귀여운 스타일도 인기를 끌고 있다. 톨레트 스타일의 비키니는 일반 비키니와 달리 어깨끈이 없고 목을 끈으로 감싸는 디자인을 말한다. 가슴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다. 스포츠 브랜드 헤드의 이효정 디자인 실장은 "올 여름 여성 수영복 패션은 과감한 노출보다는 스포티함과 귀여움을 강조하고 있다"며 "팬츠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리조트 웨어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센스 있는 리조트 웨어 입기
간편한 외출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리조트 웨어가 인기다. '해빈=수영복' 차림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 윈피스, 투피스 형식의 천편일률적인 수영복 차림에서 벗어나 쇼트팬츠나 랩 스커트 형식의 스커트를 덧입고, 후드 티셔츠를 겹치는 등 '평상복'에 가까운 리조트 웨어가 대세다.

멋을 내는 것도 좋지만 리조트 웨어는 '편안함'이 우선이다. 때문에 소재나 디자인에 있어 세타이 움직이고, 활동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올해 리조트 웨어 역시 '마린룩'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해 보이는 화이트 색상의 의상과 여름 휴가철에 '딱' 어울리는 화려한 꽃무늬·트로피컬 패턴도 잘 어울린다. 모자나 젤리 소재의 액세서리를 이용해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 발랄하고 활동적인 리조트 룩이 완성된다.

/라식정기자 ks@kwangju.co.kr



● 사진 제공=헤드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72-4585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아남전차 인근 투지지
상가건물
첨단 인근 자연·생생녹지
싼 공장, 창고부지 '급매'

금부부동산신선실링
(02)261-8949
토지매매
건물매매
아파트

매일부동산
(011)613-3334
공 장
모 텔
아파트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062)573-0775
세 많은 상가
시우나 및 모델 빌딩
상가부지
투지부지
상가 임대

정원공인중개사
(02)227-3031
본업소는
충장로·황금동
금남지하상가
임대 매매 전문중개업소입니다.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062)973-9174
첨단·수완·신창
침단최고요지
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
(02)22-8446
아파트
농 지
주 택
다 가 구 (원룸)
근린주택
공 장
근린시업
속박시업